

강호인 장관, 국제물류산업전 참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7회 국제물류산업전'에 참가했다. 강 장관은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물류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힘을 모아 물류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고 당부했다.

우태희 차관, KT네트워크관제센터 방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일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KT 네트워크관제센터(경기도 과천)를 방문했다.

박상우 사장, 공주시와 건설기술 협약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건설공사의 안전 문화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공주시와 건설기술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김용환 위원장, 안전 교육 부스 운영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2, 23일 양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생활방사선 안전 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생활방사선 안전 교육 체험 부스'는 어린이·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사례, 방사선 계측기 원리·사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생활방사선 측정 게임, O·X 퀴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백창현 사장, 국군장병들 격려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18일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36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이진성)을 찾아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백창현 사장은 이날 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욱)의 협조로 석탄공사 전체 근로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위문금 500만원을 모아 전달하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INTERVIEW



김원기 동해전기 대표

“더욱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전기공사라는 외길을 걸어온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전기공사협회 회원으로서 더욱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주)동해전기 대표는 이번 제5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 전력산업을 책임지는 일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느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전기공사 기업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원주 토박이인 김 사장은 1992년 동해전기를 설립,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한전을 비롯한 수요처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안전시공을 지향하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동해전기는 강원도 지역 곳곳에서 한전의 고압단기공사와 지중화공사 등을 수행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삼척의료원, 공군중앙관리단 등에서 발주한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참여해 고품질의 시공을 선보였다. 이 같은 공로로 동해전기는 강원도지사 표창, 1군사령관 감사장, 원주시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기업

“수상 계기로 사명감·책임감 다시 되새길 것”

‘전기의 날’ 산업포장...전기공사 외길 인정받아 기뻐 업계 경영난·인력난, 협회중심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김 사장의 경영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인증을 획득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동해전기 전 구성원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죠. 평소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개인과 가정, 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간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동해전기는 동종업계 평균 산업재해율 1.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0.4%를 기록하는 등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

인이다. 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산악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간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국제로타리 3730지구 치악로타리 클럽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치악로타리클럽에서는 ‘20년 봉사 개황상’과 ‘총체특별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전기공사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과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공사 협회를 중심으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진시현 기자 jinsh

한수원, 필리핀 원전수출 기반 다진다

방한 비정부 인사들과 바탄원전사업 재개 등 협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18일 경주본사에서 필리핀 에너지부 대표단과 필리핀 바탄원전 사업 재개 등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필리핀 대표단은 에너지부 차관을 대표로 신규원전 프로그램 관련 기관인 NEPIO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필리핀은 심각한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NEPIO를 설립해 건설이 중단된 바탄원전 사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

바탄원전은 1984년 연료장전 직전에 사업이 중단된 고리2호기와 동일한 원자로형으로, 향후 한수원의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필리핀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고리2호기,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자력 산

업을 방문한다. 방한 중에 대표단은 특히 원전 주변지역 내 상생 협력사업, 원자력 분야 인력개발, 핵연



18일 경주본사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및 대표단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필리핀 원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료 수급과 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건설 능력 및 운영 경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전 건설 및 안전 운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향후 필리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원전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전 세계 두산 임직원, 한날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19일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이 일제히 사회봉사활동에 나서는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두산인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미주, 유럽, 중동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7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두산인봉사의 날’은 지난 2014년 10월 첫 행사 이후 다섯 번째를 맞았으며, 두산 고유의 사회공헌 문화로 자리잡았다.

이날 한국에서는 가구 만들기, 노인시설 등 소외계층 방문, 헌혈, 지역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미국에서는 공공시설 보수 지원과 환경 정화, 중동에서는 소외계층 생필품 기부, 영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센터 보수 및 도서 기부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따뜻한 가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봉사활동에 참여해 한부모 가정에 전달할 수납장과 책상을 만들었다. 가구는 각 가정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됐다.

박 회장은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 행사는 두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방문



19일 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협회를 방문해 소방시설협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 의원은 특히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주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발주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분리발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으며, 앞으로 입법 추진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게 소방시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소방시설협회와 대화를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정당한 대가 지급 등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과 협력적 대화를 통해 합치점을 찾고 입법화를 위해 힘을 실겠다”고 말했다.

최영웅 소방시설협회 회장은 “바쁘신 국정운영에도 협회를 방문 해주셔서 회원과 임직원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지속적으로 협회와 소방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ydw@

중전기 선두주자 (주)평일이 열거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 믿을 수 있는 회사, (주)평일이 만들면 다릅니다. 선두의 자리에서도 게을리 하지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Technology Innovation

py (주) 평일 PYUNGIL Co., Ltd.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9-30(관양동)
 TEL: (031) 420-6600 FAX: (031) 424-7300 Home Page : www.pyungil.com

